

## 전무길 소설 「역경」의 검열과 복원

김민수\* · 김정화\*\*

### 요약

본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의 신문 검열 양상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 살펴 보고, 검열에 의한 행정 처분 과정에서 훼손된 작품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에 대한 행정 처분 기록이 남아 있는데, 행정 처분 목록에서 전무길의 「역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무길의 「역경」은 『동아일보』에 1931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15회 연재되었으며 16회 연재분은 발표될 수 없었고, 연재 중지 기사가 게재되었다. 「역경」과 관련된 검열에 관한 내용 일체는 『조선출판경찰월보』 제31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면이 지워진 채 발행되었던 「역경」의 16회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경」의 경우 식민지 조선의 농촌 사회상에 대한 실상을 폭로하는 대목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에게 있어 신문 검열은 식민지 경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신문은 사건 보도, 이를 반영하는 논설, 문예물 등이 신속히 전달되는 언론 매체였기에, 훨씬 더 민감한 통제 대상이었다. 전무길의 「역경」은 신문 문예면을 통제하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신문 연재소설의 검열을 새롭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주제어: 전무길, 일제강점기, 〈역경〉, 신문연재소설, 검열, 통제, 『조선출판경찰월보』

\* 주저자,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선문대학교 인문미래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1. 문제제기
2. 「역경」의 성격과 검열 양상
3. 검열 자료로 확인되는 「역경」의 소설적 지향
4. 신문 연재소설의 검열과 사상통제의 의미
5. 결론

## 1. 문제제기

일제강점기 조선의 출판 시장은 총독부의 검열과 통제를 받았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출판 검열은 1926년 4월 조선총독부 산하 경무국 도서과가 신설되면서 체계화되었다. 각 지방 관청과 부서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검열 관리가 도서과 독립 신설로 출판 검열의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체계적인 행정 처분 및 검열 문건 관리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검열 체제는 전시동원체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193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특히 검열 후 행정 처분된 출판물을 월별로 정리한 『조선출판경찰월보』가 생산된 1928년 9월부터 1938년 12월까지가 ‘출판 검열 체계화 시기’<sup>1)</sup>에 해당한다. 『조선출판경찰월보』는 경무국 도서과에서 정리한 비밀 검열 문건이다. 검열을 총괄하는 중앙부서가 주체가 되어 모든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사안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렸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조선출판경찰월보』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 조선의 언론 매체는 검열 제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었다. 출판 출원부터 출판 과정에서 추가로 검열을 받는 까다로운 통제 시스템 속에서 출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은 제한된

1) 김정화·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 출판검열 통계표에 드러난 출판 시장의 변동과 통제 양상」, 『우리어문연구』 68, 우리어문학회, 2020, 38면.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했고, 1920년 민간지가 허가된 이후에도 휴간과 정간, 폐간 등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언론 탄압을 받았다. 신문에 대한 일제의 검열 정책은 『조선출판경찰월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의 <표-1>은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신문지 행정 처분 건수표 중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은 수를 정리한 것이다. 조선 내에서 발행된 신문은 조선인이 조선문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신문지법’, 일본어나 다른 언어로 발행한 경우에는 신문지법에 비해 통제나 제재가 느슨한 ‘신문지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행정 처분 건수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은 수가 ‘신문지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총 건수의 비율을 보면 신문지 행정 처분 23,818건 중 신문지법은 7.19%에 불과하다. 이는 출판검열 체계화 시기의 조선 내 조선어 신문 시장 자체가 이미 축소되었으며, 총독부가 제국의 정책과 부합하는 이수입 출판물을 활용하고 식민정책에 반하는 출판물은 차단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사상 통제 정책을 전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 『조선출판경찰월보』 통계표 수록 신문지 행정 처분 건수표

신문지법		신문지규칙	
치안	풍속	치안	풍속
1,704건	10건	20,559건	1,545건

특히 1936년을 기점으로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수록되었던 항목 이외에 ‘조선문 신문지 행정 처분 일람표’라는 통계표가 수록되었다. 『조선출판경찰월보』 89호(1936년 1월분)부터 추가된 이 통계표는 1935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문 신문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의 검열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일제의 검열 정책이 점차 강화되었으며, 심각한 수준의 통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신문 검열은 사전검열을 거쳤던 잡지나 단행본과는 달리 인쇄본에 대한 납본 검열이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의 기사가 문제

가 되었을 경우 삭제나 복자와 같은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았다. 그렇기에 신문에서 삭제처분을 받아 사라진 글을 복원한다면, 총독부의 시각에서 문제가 된 판단 기준, 더 나아가 식민지 조선을 향한 일제의 사상통제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신문 검열의 양상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독부 도서과의 검열 문건인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에 대한 행정 처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 처분 목록에서 전무길의 단편소설 『역경』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1년 2월 18일부터 1931년 3월 10일까지 15회 연재된 이 소설은 16회 연재분 내용의 문제 때문에 차압 조치를 당하였고,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에 그 검열 사유와 출판 금지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원문이 수록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작품의 실체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둘째, 『역경』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 검열 주체인 출판경찰의 검열 의도 뿐만 아니라 제국 일본의 언론탄압의 방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검열 심화기에는 출판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열로 수많은 작품들이 훼손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출판 검열 문건이 수많은 작품의 실체를 확인하고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전무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 백철이 『신문학사조사』<sup>2)</sup>에서 전무길이 1929년부터 1935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음을 거론하며 이 시기의 전무길의 창작 방향이라 할 수 있는 ‘폭로소설’이 “일종의 경향소설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특징은 당대 함일돈의 평론에서 보이듯 ‘항상 폭로소설에 민완(敏腕)을 내두르는 이’<sup>3)</sup>라고 규

2)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403면.

3) 함일돈, 『九月創作評』, 『문예월간』 1, 문예월간사, 1931.11, 15면.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무길에 대한 백철의 평가는 당대 평단의 시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무길의 「역경」이 검열된 양상은 이상경에 의해서 처음 논의되었다. 『조선출판경찰월보』 제31호에 「역경」이 차압된 정황과 함께 “작중 인물이 지옥과 같은 농촌 사정을 듣고 의분을 느끼는 내용”<sup>4)</sup>이 문제 부분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다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남현은 소설사를 기술하면서 ‘그동안 현대문학 연구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한 작가들’<sup>5)</sup>을 꼽으면서 전무길을 소설사 내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경」은 논의의 대상에 들지 못하였지만, 「적멸」 등 다섯 편의 작품들이 소설사의 편입되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뚜렷한 성과로 제시되었다.<sup>6)</sup>

이후 전무길에 대한 연구는 그의 작품 경향을 충실히 검토해 나가면서 동시에 저작 목록을 복원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경덕은 전무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과 월북 후 창작한 작품을 찾아 밝히며 전무길의 소설 목록을 확정하였고, 동시에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희생 모티프가 창작 시기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고 있음을 정리하였다.<sup>7)</sup> 또한,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발굴·공개하는 시도를 통해 전무길의 삶과 그의 문학세계가 미약하게 조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8)</sup>

4)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 397면.

5)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6면.

6) 『한국현대소설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무길의 소설은 총 5편이며 다음의 소설들이다. 「審判」(『조선지광』, 1929.9-1930.1), 「迷路」(『조선지광』, 1929.2), 「아버지의 마음」(『제일선』, 1932.5), 「시드는 꽃」(『동광』, 1932.11), 「적멸」(『동아일보』, 1937.6.3.-7.6)

7) 조경덕, 「전무길 소설 연구」, 『우리文學研究』 52, 우리문화회, 2016, 485-508면.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애, 「발굴 근대소설 해제」 5, 『근대서지』 20, 2019, 183-193면.)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검열에 의한 행정 처분 과정에서 훼손된 작품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전무길의 단편소설 『역경』의 내용을 복원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문학 연구에서 검열 후에 남겨진 불안전한 작품을 부분적으로나마 복원함으로써 연구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역경』의 검열과 그에 따른 언론매체의 대응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사상통제의 방향성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 2. 「역경」의 성격과 검열 양상

### 1) 「역경」의 작품 성격

전무길의 『역경』은 『동아일보』에 1931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15회 연재가 된 소설로 알려져 왔다. 3월 10일 소설의 15회가 연재되었고, 3월 11일자 신문에는 소설 연재 지면이 지워진 흔적만 남아있다. 그리고 3월 12일자 신문에 소설의 연재를 중단한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후 소설 연재가 중단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확인된 소설 『역경』의 내용은 3월 10일 발행된 15회 연재분까지가 해당된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1931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를 살펴보면 『역경』의 116회 부분이 실려 있어야 할 공간의 활자가 모두 지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튿날 발행된 〈그림2〉의 면을 살펴보면 『역경』의 게재 중지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갑작스럽게 게재가 중단된 경위를 게재 중지 기사에서는 단순히 ‘事情으로 中止’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9) 『“逆境”掲載中止』“本面に 連載中이든 全武吉氏의 小説 “逆境(역경)은 □事情으로 中止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검열로 삭제된 단편소설 「역경」, 〈그림 2〉 「역경」의 게재 중지 기사)  
『동아일보』(1931.03.11) 『동아일보』(1931.03.12)

적으로 「역경」이 지니고 있는 작품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역경」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희생 모티프 작품군 속에 분류되었다. 위와 같은 시각은 전무길의 소설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여성 주체가 부패한 지배 계층에 의해 희생당하는 전개가 반복된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역경」도 그 한 경향 속에서 논의되었음을 보여준다. 「역경」은 연재 1회분부터 6회분까지가 ‘축출(逐出)’이라는 소재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7회부터 12회까지 ‘번롱(飜弄)’이라는 소재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회부터 마지막으로 연재된 15회까지는 ‘전기(轉機)’라는 소재목으로 전개되었다. 문제는 16회에 게재가 중지됨으로 해서 사실상 작품의 중·후반부라 할 수 있는 ‘전기(轉機)’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특히 초반부의 ‘축출’과 중반부의 ‘번롱’이 정확히 6회 연재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3부에 해당하는 ‘전기’ 역시 13화부터 18화까지 무리없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3번째 소재목인 ‘전기(轉機)’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후의 내용 서술

방식이 여성인물의 희생 모티프에서 전환되어 새로운 시사점으로 나아가도록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리스여자학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배순희는 사회운동가인 신표와 연애 중이다. 신표는 어느 날 순희를 찾아와 자신이 Y비밀결사의 간부임을 고백하고 동료의 배신 때문에 해외 도피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한다. 순희와 신표의 이별 장면 장면을 지켜본 미스 뿌라운 서양부인 교장은 신성한 학교에 남자를 데려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순희를 쫓아낸다. 학교에서 쫓겨난 순희는 마침 조명숙이라는 동료의 도움으로 조선보모학교 교내음악회에 피아노독주를 부탁받는다. 순희는 피아노 실력을 인정받아 그 기회를 통해 조선보모학교 음악선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선보모학교는 모리스여자학원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그것은 교장 최영호의 출세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만든 교풍이기도 했다. 순희는 그의 결점들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침묵하기를 택한다. 어느 여름날 순희는 동료인 조명숙과 교장 최영호와 함께 월미도로 휴양을 떠난다. 순희는 해수욕하는 것이 어색하였지만, 이내 월미도의 유흥분위기에 휩쓸리고 만다. 그날 밤 순희는 호텔 목욕탕에서 최영호에게 겁탈을 당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병원에 입원한 순희는 자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곧 임질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보름간의 입원 끝에 임질은 거의 치료가 되었으나 마음의 병으로 인해 지쳐가는 순희 앞에 친척인 로경애라는 화가가 찾아온다. 순희는 경애와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자신이 농촌에 뜻이 있음을 밝힌다. 순희는 경애에게 농촌 사회의 실상을 전해듣는다.

간략히 정리한 「역경」의 내용을 보면 초반부에 주인공 ‘배순희’는 모리스여자학원에서 해고당하는 일을 겪은 뒤 다시 조선보모학교의 음악교사로 입사하여, 월미도 휴양을 떠났다가 교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일로 성병을 얻어 치유하던 중에 자신을 찾아온 언니에게 농촌의 실상을 전해



듣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소설의 3번째 소제목인 ‘전기’가 시작되면서 배경이 부인병원으로 바뀌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소설이 중반부 이후에 본격적인 주제의식으로 돌입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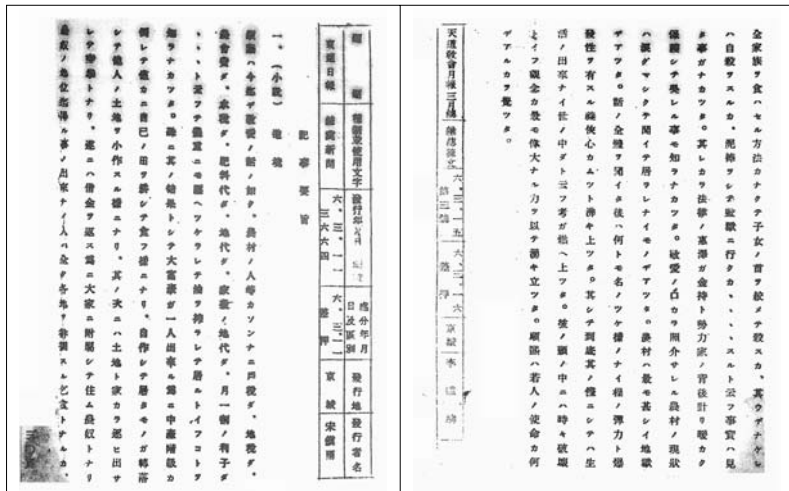
이는 그의 전작들의 변모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1929년 작인 「미로」, 「심판」 등에서 유사하게 반복되었던 여성 인물의 희생 모티프가 1930년에 발표된 「허영녀의 독백」에서는 주체성을 추구하는 인물의 등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즉 그의 1931년작 「역경」이 당대에 검열된 정황과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기재된 부분들을 확인하여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이 작품이 지닌 본래의 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규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전무길의 소설 세계의 흐름과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역경」을 복원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일이야말로 전무길 소설 세계의 본질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문학작품에 대한 사상통제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전무길이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단편소설 「역경」에 대한 검열 기록이 남아있다. 「역경」은 소설을 연재할 당시 16회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도서과로부터 차압 조치를 당하면서 해당 연재분의 소설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남아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우선 차압 기사요지를 통해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검열된 정황을 살펴보고, 일본어로 검열된 내용을 재번역하여 실제 소설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설의 어떤 부분이 차압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검열 내용과 그로 인해 작품 전반에 관한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기로 한다.

2)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역경」의 차압 기사요지의 내용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1931년 3월호)에는 전무길의 「역경」의 차압 행정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무길의 소설 내용이 문제가 되었고, 『동아일보』 1931년 3월 11일자 신문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검열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출판물명 『동아일보』 1931년 3월 11일, 저자명 미기재, 발행인명 송진우, 주소 경성, 처분일시 1931년 3월 11일, 처분내역 차압, 처분근거는 미기재이다.

문건에는 불허가 조치를 받게 된 출판물의 기사 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소설의 내용이 2쪽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기록은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 기록을 통하여 삭제된 단편소설 「역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 불허가 출판물 기사 요지 내용<sup>10)</sup>

10)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

〈그림 3〉에는 『동아일보』에 연재 중이었던 소설 「역경」의 내용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게 된 문제적 내용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 검열관이 소설의 실제 내용을 일본어로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내용을 통해 실제 소설 내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의 기사요지를 보면 『동아일보』가 신문지법의 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이유가 「小説」 逆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건의 내용을 통해 전무길의 「역경」 내의 어떤 내용이 어떤 이유로 차압 조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건의 내용을 통해 전무길의 「역경」 16회 연재분의 일부분을 복원하고자 한다.

題號	種類並使用文字	發行年月日 第 號	處分年月 日及區別	發行地	發行者名
東亞日報	諺文 新聞	六、三、一一 三六六四	六、三、一一 差押	京城	宋鎮雨 [宋鎮禹의 오류]

### (小説) 逆境

順熙ハ 今迄デ 敬愛ノ話ノ如ク、農村ノ人等ガ ソンナニ 戶稅ダ、地稅ダ、農會費ダ、水稅ダ、肥料代ダ、地代ダ、家數ノ地代ダ、月一割ノ利子ダ……ト云フテ幾重ニモ壓ヘツケラレテ油ヲ搾ラレテ居ルトイウコトヲ 知ラナカッタ。殊ニ其ノ結果トシテ大富豪ガ一人出來ル爲ニ中産階級カ倒レテ僅カニ自己ノ田ヲ耕シテ食フ様ニナリ、自作シテ居タモノガ轉落シテ 他人ノ土地ヲ小作スル様ニナリ、其ノ次ニハ土地ト家カラ逐ヒ出サレテ空拳トナリ、遂ニハ借金ヲ返ス爲ニ大家ニ附屬シテ住ム農奴トナリ、農奴ノ地位迄得ル事ノ出來ナイ人ハ全ク各地ヲ徘徊スル乞食ニナルカ、全家族ヲ食ハセル方法ガナクテ子女ノ首ヲ絞メテ殺スカ、其ウデナ케レバ自殺スルカ、泥棒ヲシテ監獄ニ行クカ……スルト云フ事實ハ見タコトガナカッタ。其レカラ法律ニ惠澤ガ金持ト勢力家ノ背後計リ暖かく保護シテ吳レル事モ 知ラナカッタ。敬愛ノロカラ照介サレル農村ノ現狀ハ涙グマシクテ聞イテ

居ラレナイモノデアッ。農村ハ最モ甚シイ地獄デアッ。話ノ全體ヲ聞  
 イタ後ハ何トモ名ノツケ様ノナイ程ノ彈力ト爆發性ヲ有スル義俠心ガムッ  
 ト沸キ上ッ。彼ノ頭ノ中ニハ時々破壊トイフ觀念ガ最モ偉大ナル力ヲ以  
 テ湧キ立ッ。順熙ハ若人ノ使命ガ何デアルカヲ覺ッ。

출판물명	저자 명	발행 인명	주 소	처분일시	처분 내역	근 거	언어
동아일보(東 亞日報) 1931년 3월 11일	미기 재	송진 우(宋 鎭禹)	경 성	1931년 3월 11일	차압	미 기 재	언 한

(소설) 역경(逆境)

순희는 지금까지 경애의 이야기처럼, 농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호세(戶稅)다, 지세다, 농회비(農會費)다, 수세(水稅)다, 비료값이다, 지대(地代)다, 집 부지의 지대다, 월 1할의 이자다 ……라고 하면서 겹겹으로 짓눌러 기름을 짜이고 있는 것을 몰랐다. 특히 그 결과로서 한 사람의 대부호가 만들어지기 위해, 중산계급이 쓰러져 겨우 자신의 논을 경작하며 먹고 살게 되고, 자작(自作)하고 있던 자가 전락해 남의 토지를 소작하는 꼴이 되고, 그다음에는 토지와 집에서 쫓겨나 빈손이 되어, 결국에는 빚을 갚기 위해 대가(大家)에 붙어사는 농노가 되어, 농노의 지위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각지를 배회하는 거지가 되거나,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 자녀의 목을 줄라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하거나, 도둑질하다 감옥에 가거나 ……한다는 사실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법률의 혜택이 부자와 세력가의 배후만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도 몰랐다. 경애의 입에서 소개된 농촌의 현상은 눈물겨워 듣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농촌은 가장 심한 지옥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뭐라고 이름 짓지 못할 정도의 탄력과 폭발성을 지닌 의협심이 불끈 끓어올랐다. 그리고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불타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때때로 파괴라는 관념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솟구쳤다. 순희는 젊은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sup>11)</sup>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 내용이 문제가 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은 1931년 3월 11일자의 신문 연재분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식민지 조선 농촌 사회상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순희가 경애의 이야기를 듣고 농촌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대목만을 주목하여 살펴본다면, 농촌의 사회상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제도적으로 구축된 각종 세금과 이자에 의해 ‘자작(自作)하고 있던 자가 소작인이 되고 ‘농노의 지위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거지’ 혹은 범죄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처분 근거는 기재되지 않고 있으나 사회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구체적인 제도적 모순을 꼬집는 형태의 서술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농촌은 가장 심한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규정을 내리는 대목에 이르면 매우 분명해진다.

전무길이 쓰려던 그대로의 원문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16회 속 이야기는 모두 서술자에 의해 기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술자가 인물이 변화되기에 앞서 농촌의 현실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인물이 특정한 사상이 주입되어 변화에 이르기 전에 내포 작가가 이미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열된 부분을 복원하였을 때 「역경」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혹은, 어떤 지점에서 기존의 문학사적 평가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까. 이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11)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 번역 및 일본어 표기는 선문대학교 인문미래연구소 우시지마 요시미 연구원의 검수를 받음.

### 3. 검열 자료로 확인되는 「역경」의 소설적 지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경」은 검열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세 부분으로 나뉘는 소설이다. 이 세 부분은 모두 공간적 배경의 변화로도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소재목인 ‘축출(逐出)’에서는 모리스여자학원이 배경이며 두 번째 소재목인 ‘번롱(飜弄)’은 조선보모학교와 월미도, 세 번째 ‘전기(轉機)’는 부인병원이 배경이다. 이번 절에서는 각각의 소재목을 통해 구분된 단위를 기준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서 「역경」이 지닌 본질적 의미와 작가가 의미화하고자 했던 지점을 집중적으로 추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소재목인 ‘축출’에서는 연인인 신표가 이별을 고하러 왔던 것을 이유로 순희가 학원을 떠나는 대목까지 그려지는데, 사회운동가인 신표의 사상적 지지자이기도 한 그녀가 고뇌하는 대목은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순희는 이 순간에 말할수없는 환멸을 느꼈다. 더욱이나 방금 전에 여러 동무들이 부러워하던 자기의 행복이 마치 한 찰나에만 빛나고 사라지는 류성(流星)의 아름다운 빛과 가뭄을 슬허하지 안을수가 없었다. 물론 자기가 사랑하던 신표의 압길을 넘려하며 또 그의 행복을 도와주고 십지 안흔 바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자기의 행복을 생각하지 안할수가 없었다. 사실에 잇서 만일에 신표가 갖치 가차고 손목을 잡아 쓰으는 한 이 잇다쳐도 정처업시 다라나는 신표의 뒤소리를 팔하나설만한 용기는 없었다. 순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sup>12)</sup>

위의 인용문은 그들이 이별하는 순간에 순희가 떠나는 그를 앞에 두고 고뇌하는 대목이다. 사회운동가이자 수배자가 된 연인이 떠나는 것을 순희는 따라나설 수 없다. 오히려 순희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두

12) 전무길, 「역경」 제5화, 『동아일보』, 1931.2.25, 5면.

사람의 사이보다, 혹은 연인의 행복보다 본인의 행복이 우선 순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사유의 맺음은 자기 자신에게 그를 따라나설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만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은 순희의 소극적 태도는 결국 스스로 학원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이 작품은 순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변화를 제시하고 어떤 특정한 선택을 요구하는데 서사를 밀고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순희의 선택에 달려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이는 두 번째 직장인 조선보모학교에 소속교사로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일종의 통과의례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흥 천하에 너자가티 맹랑한 것이 또 어대잇서……울리거나 웃기거나 내맘대로다…….”

이것이 영호의 장답이었다. 그러나 아모리 쉬우게 마실수 있는 약주(藥酒)라도 그것을 과도하게 마시면 실수가 되고 주체(酒滯)를 일으키는 법이었던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썩다구채 머리칼채 말끔히 할타 버릴 재조와 소화력이 업섯다. 그럼으로 간혹 뒤꼬리가 남아있다가 식체를 이르는 것이었다. 비록 이런 경우 탈업시 미끈하게 꾸며놓는 것이 그의 능난한 수완이었다. 팔방미인(八方美人)…… 돈…… 이 두가지가 그의 처세 방법의 묘리(妙理)며 목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추행의 기다린 꼬리가 힘찬 진리의 발사길에 짓밟히지도 안코 인격의 파산선고를 바듬도 없고 사회에서 행세하며 다니는데 지장도 업시 제몸난양으로 내두는 것이 그의 기발한 재조였다. 각급 신문과 잡지에서 그를 명사니 유지니 선생이니 하는 이를 아레서 쫘다란 의견을 주서다 잇는 것도 과관이였다. 순희도 영호의 결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눈과 귀와 입을 꼭닫을고 모르는 체하는 것이 상책이였다. 그는 다만 자기의 주린 창자를 이런 곳에 와서 채우지 안으면 견딜 수 업는 자기의 처지를 탄식할 뿐이였다.<sup>13)</sup>

위의 대목은 조선보모학교 교장인 최영호가 어떤 인물인지를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순희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순희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순희는 본질적으로 학교의 교사이면서 사회운동가인 연인의 활동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임과 동시에 자본과 남성의 폭력 앞에 노출된 약자이기도 하다. ‘축출’에서 순희가 부당한 해고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가 그 당시 사회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임과 동시에 연인을 따라나설 수 없는 부족한 용기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는 ‘변룡’에서 보다 강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영호의 결점들을 모르는 체하자고 마음먹은 것은 세상의 부조리함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청년 지식인들의 모습을 표상한다. 결국 자본 권력 앞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성되고 있는 한 일면을 보여주기 위해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소재목인 ‘전기’에 이르러서는 순희가 경애에 의해 농촌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의식화되는 변화과정을 급진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로경애는 순희가 조선 농촌의 실상을 파악하고 의식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인물이다. 화가이자 동시에 세계일주를 떠났다가 파리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염문설에 휘말려 수원에 있는 이모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당대의 화가이자 소설가이며 화계의 인물이었던 나혜석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서로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애의 등장으로 인해 순희는 식민지 농촌의 현실을 불현듯 깨닫는다. 그 실상은 ‘짧은이의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전환되고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세상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기로 변화한다. 궁극적으로 이 소설은 단순히 폭로나 희생에 머무르지 않고

13) 전무길, 『역경』 제8화, 『동아일보』, 1931.2.28, 5면.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소설이라 볼 수 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돈과 여성을 밝히기만 하는 사회 저명한 인사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최영호에게 집약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은 저항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희의 선택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임을 내포한다. 후에 전무길은 비평문의 기고를 통해 「역경」이 ‘폭로소설’이라고 하는 의견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일찍히 東亞日報에 실든 抽□『역경(逆境)』을 가지고 暴露小說이라고 하는 분이 만혔스나 그作品全體에서보면 疑示되는 部分이 極히 淺은 過程에서 지나지 안코 全體目的에서 큰 役割을하는 것도 안이어서 輕輕히 取扱한 것이었스나 不幸히도 問題가 多端하여서 마침내 咸氏에게까지 答 先入見을주엇든듯십호다.<sup>14)</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폭로소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 목적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의 이야기는 소설의 폭로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작품의 목적이 폭로 외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단한 문제들에 의해 목적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 「역경」이 끝내 전체 목적을 드러내 보이는 데는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아 「역경」의 검열된 부분을 함께 읽어 주는 것이 이 작품의 ‘전체 목적’과 가장 유사한 맥락을 읽어내는 방법일 것이다. 최초 12회의 걸친 분량은 식민지 조선의 농촌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설로 읽히게 되어 있으며, 소재목이 바뀔 때마다 주된 이야기 대상은 변화한다. 매우 통속적으로 읽히던 Y비밀결사 간부인 연인의 해외 도피와 이별, 후에 폭로적 성격을 지닌 사회 저명 인사의 부패한 이중성 목도와 성

14) 전무길, 「九十月創作評」, 『조선일보』, 1931.11.15., 5면.

폭행을 통한 성병 감염 등으로 주인공 순희가 당면하는 상황은 차츰 강도를 달리하며 변해 간다. 그 이후에 급작스러운 기조 변화를 통해 ‘지옥’과도 같은 ‘농촌’의 현실을 한두 회에 걸쳐 쏟아내는 연재 방식은 검열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에 대한 소설가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실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감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는 결국 목적의식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게재 중지라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졌다.

물론 주체적이지 못하고 내내 순응으로 일관하였던 순희가 갖은 역경 끝에 소설 중·후반부에 이르러 의식화를 통해 ‘젊은이의 사명’을 가진 주체적 인물로 거듭난다는 전개는 충분히 예상해 봄직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전개에 가깝다는 면에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 속에서 창조해 낸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이 아닌, 주인공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현실 자체에 대한 폭로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폭로소설’이라 명명된 소설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의 검열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지점은 전무길의 사상적 지향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확인된다는 것과 사회의 불합리함을 통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색적인 여성 인물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지닌 의식화된 청년 인물의 창조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음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제강점기 신문연재소설의 검열된 양상을 새롭게 들여다보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 4. 신문 연재소설의 검열과 사상통제의 의미

‘출판 검열 체계화 시기’의 신문은 총독부에게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다. 신문 발행인 및 집필진들은 신문지법의 불합리성과 차별성 등 검열이 갖는 문제점을 통해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지점에 놓여있었으며, 총독부는 이를 통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출판경찰월보』의 통계표에는 1936년을 기점으로 1938년까지 ‘조선문 신문지 행정 처분 일람표’<sup>15)</sup>가 추가되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의 행정 처분 현황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사요지’를 살펴보면 3,877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동아일보가 142건, 조선일보가 140건인 반면 매일신보는 단 25건에 불과했다. 조선문 신문을 관리하고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검열과 통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무길의 「역경」이 『동아일보』에 연재된 1931년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서 시작된 강력한 저항 통제의 필요성이 신간회 해소와 맞물려 총독부의 사상 통제 방향성이 전환된 시기이다. 총독부는 『언문신문의 시가』(1930년), 『신문차압기사집록』(1932년) 등과 같은 비밀자료집<sup>16)</sup>을 발행하여 조선어 신문에 대한 통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했는데, 대중적 매체인 신문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이 검열의 우선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가능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글들에 대

15)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89호부터 기존의 통계표인 출판물 납본 수 및 출판 출원 수표, 출판물 행정 처분 건수표, 신문지 행정 처분 건수표, 행정 처분 통계, 주의통계(삭제병주의통계)에 ‘조선문 신문지 행정 처분 일람표’가 추가되었다. 4개의 일간지 중 조선중앙일보는 신문이 폐간된 시기인 1937년 11월을 기점으로 조선문 신문지 행정 처분 일람표에서 삭제되었고, 조선 118호(1938년 6월분)에는 신문 매체에 ‘진홍’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이후 호수에서는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만 표기하여 행정 처분 현황을 기재했다.

16)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197-206면.

한 집중적인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졌고, 전무길의 소설 『역경』은 신문 연재 한 회가 전부 삭제된 이후 바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검열을 받은 근거나 사유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사요지를 통해 농촌 문제에 대한 의식화 과정을 다룬 내용 때문에 차압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열관이 이 작품에서 문제라고 판단한 근거에는 식민지 조선 농촌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만이 아니라 순회라는 피지배적 인물이 표상하는 식민지의 젊은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상 주입(혹은 계급의식 도발)이 투영되어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통제 방향성은 전무길이 1930년에 발행한 종합 잡지 『대조(大潮)』에 대한 검열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사요지에는 『대조』에 대한 검열 기록이 총 5건 남아있는데, 현대교육의 문제 비판, 프로문학 및 동맹파업 선동, 민족의식 고취 등이 문제가 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반자 작가로서 전무길의 사상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며, “계급투쟁 기타 쟁의를 선동하는 기사”<sup>17)</sup>에 대한 총독부의 조선문 간행물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무길의 소설 『역경』은 식민지 농촌의 현실의 문제를 청년들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명을 느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진 작품이다. 문제는 검열관의 단 한차례의 ‘차압’ 처분이 소설 연재의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검열에 의한 작품의 훼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출판 시장이 총독부의 기획에 따라 통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문의 문예물은 물론 이 시기의 수많은 기사들의 검열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다.

17) 계급투쟁 기타 쟁의를 선동하는 기사와 관련하여 가. 조각쟁의 노동쟁의 형평운동 동맹파업 동맹휴교 등을 조성하거나 선동하고 또는 찬양하는 기사 나. 계급투쟁을 조성하거나 선동하고 또는 찬양하는 기사 항이 존재한다. 정진석, 위의 책, 252-255면.

## 5. 결론

일제강점기 조선어 신문은 신문지 발행여부 자체를 허가받아야 했으며 검열 처분과 그에 따른 행정 처분, 법적처분까지 이어지는 이중 삼중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문의 특성상 기사뿐만 아니라 소설과 같은 문예물도 연재되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표현의 방향성에 예민하게 대응하며 사상통제를 강화해갔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기록을 담고 있는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 신문 검열에 의한 행정 처분 과정에서 훼손된 전무길의 「역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무길의 「역경」은 검열과 통제의 결과로서 불완전하게 남아있었던 작품이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신문 검열을 문학 작품에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무길의 「역경」이 행정 처분된 경위는 『조선출판경찰월보』 31호(1931년 3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문제가 된 소설 내용을 번역해 복원하는 시도를 통해 작품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무길의 「역경」은 초반부 매우 통속적인 소설의 형태로 전개되어, 연인과 이별한 주인공 순희가 권력을 가진 남성에게 겁탈당한다는 서사로 나아간다. 하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16회분의 내용은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농촌 현실의 실상을 주인공이 인식하여 의식화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역경」은 전무길이 식민지 조선 농촌의 실상을 알리고자 시도했던 작품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출판 검열 체계화 시기’의 신문은 총독부에게 중요한 관리 및 통제 대상이었으며 사회주의적인 혹은 계급적 성격을 드러낸 문학작품의 경우 비교적 우선적으로 검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역경」은 매 6회 연재분마다 각기 다른 소재목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었다면, 18회 혹은 그 이상의 분량으로 전개될 수 있는 소설이었다. 그러나 조선 농촌의 위태로운 현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과 이 같은 실상을 전해들은 주인공 인물이 각성하게 되는 부분은 세상으로 나올 수 없었으며 곧 작품의 연재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역경』이라는 작품은 전무길의 소설 세계를 논의할 때도 크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 문학사에서 『역경』과 같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존재하리라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검열과 행정 처분의 악순환 속에서도 창간과 폐간, 정간과 휴간 등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려 했던 무수한 시도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전무길, 「역경」, 『동아일보』, 1931.2.18.~1931.3.11.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조선출판경찰월보』, 1928.09-1938.12.

『동아일보』

『문예월간』

『조선일보』

### 2. 단행본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1, 문학과지성사, 2012.

### 3. 논문

김영애, 「발굴 근대소설 해제」 5, 『근대서지』 20, 2019, 183-193면.

김정화·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 출판검열 통계표에 드러난 출판 시장의 변동과 통제 양상」, 『우리어문연구』 68, 우리어문학회, 2020, 37-68면.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7, 한국근대문학회, 2008, 389-422면.

조경덕, 「전무길 소설 연구」, 『우리文學研究』 52, 우리문학회, 2016, 485-508면.

<Abstract>

The censorship and restoration of Kim's novel,  
<The Adversity(逆境)>

Kim, Min-Su · Kim, Jung-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pects of newspaper censorship in imperial Japan through 『Chosun Chulpan Kyeongchal wolbo』 and to restore works damaged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censorship. In 『Chosun Chulpan Kyeongchal wolbo』, there is a reco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or publications intended for publication, and Moo-Kil Chun's <The adversity> was confirmed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list. Moo-Kil Chun's <The adversity> was published 15 times in 『Dong-a Ilbo』 from February 18 to March 10, 1931, and the 16th series could not be released, and an article on discontinuation of the series was published. All of the censorship related to <The adversity> was found in No. 31 of 『Chosun Chulpan Kyeongchal wolbo』.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firm what was contained in Episode 16 of <The adversity>, which was published with the paper erased. In the case of <The adversity>, the issue of exposing the reality of colonial Chosun's rural society became a problem. For the chosun Governor-General, newspaper censorship wa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olonial management. Newspapers were much more sensitive to control because they were a media medium through which reports of incidents, editorials reflecting them, and literary materials were quickly delivered. Moo-Kil Chun's <The adversity>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controlling the literary side of a newspaper, and this is suggested as a reason to newly examine the combined heat of newspaper series.

Key words: Chun Moo-Kil , Japanese colonial era, <he adversity>, The Serial Novel in newspaper, censorship, control, 『Chosun Chulpan Kyeongchal wolbo』

투 고 일 : 2020년 11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30일-12월 10일

계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